
연구보고서 2009

I

다문화 및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II

인정투쟁 공간으로서의 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
: 아이다마을을 중심으로

연구_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영옥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후원_ 한국여성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13개사)

다 양한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고, 차이가 있어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다문화,다함께’는 전국의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특히, 모국센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기획을 가졌던 아시아 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마을(아이다마을)은 이미 인천지역의 이주여성들에게 친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친정’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는 많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과정들과 더불어 ‘사회통합’을 위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던 수많은 땀과 노력의 결과들에 대해 한국여성재단의 배분위원, 전문위원이신 2분의 교수님들께서 성과와 제안점 등을 정리해주셨습니다.

연구보고서가 전국에서 이와 같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러 단체 및 기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여성재단 조 형



발간사	05
-----	----

I. 다문화 및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1.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	10
2. 기본 개념의 이해	14
3.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주제별 지향점과 고려 사항	20
1) 직업훈련 및 창업훈련 분야	20
2) 가족통합 및 사회정착 분야	23
3) 아동 청소년 다문화 교육 분야	34
4.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참고할 자료들	36
5. 결론	38
6. 참고문헌	40

II. 인정투쟁 공간으로서의 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 아이다마을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44
2. 다문화공간으로서의 아이다마을	48

(1) 다문화주의 비판	48
(2) 다문화주의에서 다문화공간으로	50
(3) 인정/투쟁의 공간으로서의 다문화공간	52
3. 아이다마을: 다문화 윤리에 입각한 인정투쟁의 장소	55
(1) 아이다 마을 구성과 공동체 목표	55
(2) 아시아 이주여성들의 '모국센터'로서의 아이다마을	57
(3) 이주여성들 사이에 배치된 위계와 차별을 지양하다 : '우리 이주 여성'의 집단적 정체성 확보	61
(4) 생활세계의 다문화 생산주체: '교사'가 된다는 것의 의미	63
(5) 남편들의 다문화가족 의식강화: 아이다마을의 : 상징적 의미와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간의 실천적 효과	65
(6) 종족 공동체를 넘어서 : 초국적 다문화 소수자 집단 의식으로	68
: 보유, 야마다 다카코 씨의 인정투쟁	70
4. 나가는 말	75
5. 참고문헌	78

I 부는 한국여성재단이 진행한 아이다 마을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문화, 다함께> 사업에 참여한 활동 단체들과 향후 사업에 참여할 단체들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구성되었다. 2009년도 사업 결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지향점, 목적, 구체적인 고려사항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단체들이 사업을 기획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I

다문화 및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1.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
 2. 기본 개념의 이해
 3.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주제별 지향점과 고려 사항
 - 1) 직업훈련 및 창업훈련 분야
 - 2) 가족통합 및 사회정착 분야
 - 3) 아동 청소년 다문화 교육 분야
 4.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참고할 자료들
 5. 결론
 6. 참고문헌
-

1.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단일문화사회로 이주민들이 어떻게 ‘녹아들어갔는지’의 여부를 측정하기 보다는 이민자와 원주민과의 ‘관계적’ 지표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이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주류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원주민들도 이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발전되는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형태들에 주목하는 것이 다문화주의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겠다. 다문화적 관점은 단순히 여러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다른 사람들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갈등을 해결하고 공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한국사회를 고찰할 때, 이주자들만이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 역시 다양한 국가와 지역 출신의 이주자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이제까지 배타적 혈연주의에 입각한 단일문화의 우수성을 전제로 한 자문화중심주의적 관점으로 이주자들을 대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결혼을 통해 한국 가족을 만들고 한국 사회에 새로운 시민으로 정착을 한 결혼 이주 여성이 급증하면서 이제 이주민들과 원주민인 한국인들은 생활 세계의 깊은 영역에서 서로 교류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워야 할 사회적 조건에 놓여 있는 이주여성은 수동적 동화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한국 문화를 ‘낯설게’ 바라보고 새로운 문화를 한국 사회에 운반하는 적극적 행위자이다. 결혼이주자라는 우리안의 친밀한 타자의 눈을 통해 한국문화의 편협함을 성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다문화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에 대한 정부와 민간 측의 지원 사업은 여전히 ‘여성들의 가족 내 정착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한 것에만 머물러있다. 이주여성을 한국 사회 내 가족의 위기 혹은 해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제공자 - 예를 들어, 저 출산 위기와 결혼시장의 남녀 불균형, 돌봄 노동의 부재 등의 해결사 - 로만 상상하는 것이다. 이주 여성은 ‘국가 간 경제 격차’로 판단되는 저속한 위계 의식, 한국 내 가족이나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와 지원 체계를 갖지 못한 이방인, 성 불평등한 한국 가족 제도에 강압적으로 적응을 해야 하는 여성으로서의 삼중의 차별과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시민 (new citizen)’으로서의 여성들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미흡한 편이다. 무엇보다도 이주여성을 ‘21세기 한국’이라는 동시대의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평등한 행위자로 사유하고, 그들의 경험과 문화적 자원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그들을 동화시켜내는데 만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과의 평등한 교류를 통해 더욱 확장적인 문화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주민과 원주민 모두 다문화적 감수성을 배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을 통해 부(父)와 모(母)의 문화가 아이들에게 풍요롭게 전수되는 모습과, 가족의 식탁이 한국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음식으로 차려지는 모습, 이주 여성들이 주부나 며느리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자신의 삶터와 일터를 변화시켜나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 노력의 일부가 될 수 있겠다. 또한 이주여성들과 함께 한국인 남편의 가족들이 술선수범하여 외국인에 대한 몰이해나 차별조항을 없애나가려는 구체적인 활동을 벌이는 것 역시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을 앞당기는 일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

은 이주 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소속감과 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의 공적영역에서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목적 또한 소위 ‘주류화’ 관점으로 이주 여성들의 한국 사회의 각 영역에 진출하여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들의 출신국에서의 학력을 인정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한다던가, 본국에서의 각종 자격증 역시 인정하고 재교육시켜서 전문 직종으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되겠다. 사회봉사, 취업이나 경제적 활동은 여성들이 의존적 존재가 아니며 자신의 능력이 한국 사회에서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줌과 동시에 한국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어 나간다는 점에서 이들이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또한 이주 여성은 본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이나 문화교류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문화리더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주 여성들이 ‘초국적’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또한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다양한 단체들이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통합을 돕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언어교육, 한국문화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강사 교육 프로그램, 취업준비프로그램 등이 펼쳐지는가 하면 당사자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자조그룹 결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이 모색되고 있다.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궁극적으로 이주여성들이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는 문화권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들이 평등하고도 온전한 시민권을 누리며 지역사회의 중요한 행위자로 참여하는 상태를 지향한다.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다문화, 다함께> 사업을 진행해 온 단체들이 보여준 성과도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 <다문화, 다함께> 사업의 지향점은 다문화 및 성평등적 관점에서 이주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주여성과 원주민들 간의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한국 사회의 문화적 포용성과 다양성을 확장시켜나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각 단체들이 추진하는 프로그램들 간의 역동적인 결합이나, 각 단체들 간의 생산적인 협조체제는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단체들은 개별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개별화된 방식의 프로그램 기획이나 수행은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 배우는 협동적 작업을 저해한다. 단체들 간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시행착오적 사례들을 공유하게 되면 질적으로 도약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본 장은 향후 단체들이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여성재단이 수행한 <다문화, 다함께> 사업의 지향점을 소개하고, 사업을 기획하는데 필요한 기본 개념이나 고려 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 쓰인 본 장이 향후 다문화 및 성평등 관점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체들에게 사업의 목적과 수행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인식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기본 개념의 이해

1)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정의하거나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개념이지만, 흔히 이주민들을 주류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거나 동화시켜 소외나 사회적 불안등과 같은 갈등 상황을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유입국의 '상상된' 단일문화사회로 어떻게 '녹아들 어갔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글로벌화로 이주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이주민의 규모나 양상이 달라지면서 더 이상 '동화'를 통한 사회통합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이주민과 원주민과의 '관계적 지표'를 통해 '통합'의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주류사회가 이민자들에 의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채 이민자들이 일방적으로 '수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판단에서 벗어나 '일치되는 부분'과 '분리된 부분'의 정도를 분석하여 이주민들의 사회,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주민들과 원주민들이 구조적(노동시장, 교육 및 훈련, 주택, 사회적 서비스 제공여부 등)차원과 정치-문화적(공식, 비공식 형태의 참여, 수용, 문화적 교환)차원에서 어떻게 참여하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 이주민들이 특정 영역에서 참여를 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단순히 주류 문화로의 동화나 수렴으로 이해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이주민의 진정한 사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견해가 대두하고 있다.

또한 많은 연구물들은 이주자의 통합이 가장 잘 이루어진 경우는 이주자의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원활하게 하는 지원을 통해 이주자들의 소속감과 참여를 높인 경우였다고 주장한다. 이 말의 의미는 저소득층 지원 정책으로 대표되는 이주자 적응 정책이 사실은 이주자들을 '낮은 수준'의 복지 혜택의 수혜자로 만들면서 오히려 이주자들의 지속적인 실업 상황을 야기 시킨다는 비판이다. 결국에는 이주자들에 대한 정부의 '선량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주자들을 사회의 주변부로 간주하고 정책을 펴나가는 한 이주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정책은 '복지'의 영역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정치, 교육, 노동, 주택, 사회적 서비스, 대중 매체 등의 전 영역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며 이주자들이 이런 영역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시민권

한 개인의 법적 인격은 '시민권'을 확보함으로써 실현되어질 수 있다. 보통 시민권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권리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공민권은 언론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계약의 자유,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의 자유권을 의미하며, 정치적 권리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로, 사회권은 보편적, 적극적 복지를 통해 인간적 삶을 보장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는 권리의 영역은 사회권이다. 사회권은 국제인권규약 가운데 하나로 국가에 의한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약칭이며, 'A

규약'이라고도 한다. 1966년 12월 제3회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되고 1976년 1월 3일 발효되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과 함께 '국제인권규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자유권이 국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개인의 생명·재산·자유 등을 요구하는 소극적 권리라면, 사회권은 '실질적 평등'과 분배 정의를 핵심 내용으로, 국가에 그 이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이다. 요컨대 일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일정기간의 유급휴가 등 휴식과 여유를 가질 권리,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자신의 지적 창조물에 대해 보호 받을 권리를 말한다. 사회권이 권리의 성취를 목표로 한다는 의미에서 능동적이라면, 자유권은 권리의 수호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이 처음으로 헌법에 반영된 것은 1919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사회·경제적 강자의 경제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는 사회권을 보장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999년 1월 현재 사회권 조약을 비준한 나라는 140개국이며, 한국은 1990년에 비준했다.

법적으로 완전한 성원권을 획득하지 못한 이주자라 하더라도 국제 규약 상 사회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국민과 시민권이 일치되는 사회의 경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권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하더라도 이주자로서의 합법적 지위를 통해 사회권을 누리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주자를 위한 사회권 확장에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문화권

헌법 등에는 구체적으로 명문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문화권'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하다. 이주민의 문화권(Cultural Rights)은 이주민이나 문화소수자들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 및 주류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다문화주의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도 일종의 권리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때문에 문화권은 다문화 사회를 상상할 때 필수적인 개념이다. 문화는 각 집단의 역사적 적응과 경험의 결과물이므로 우열을 가릴 수 없고 위계화 될 수 없다.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한 문화 개념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정치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문화권'의 개념이다. 즉, 특정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사회적 인정과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가장 기초적인 시민의 권리인 정치적 권리, 노동권, 사회권 등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런 권리들의 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문화적 인정이다. 시민권의 하나로서의 '문화권'은 주류로의 통합을 가능케 하는 물적, 정서적 자원을 공급하는 일인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적 차이'를 옹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문화권은 주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의 권리를 갖지만 동시에 소수자로서 자신의 언어, 생활양식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며, 원치 않은 강압적 문화 통합에 대항하여 주류 문화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Castles and Davidson, 2000).

한국 사회의 경우 외국인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문화중심주의가 강한 편이다. 자문화중심주의란 (1) 자신의 문화만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믿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태도; (2) 자기 문화를 중심으

로 한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나쁘게 평가하는 사고방식; (3) 자기 문화에 대한 성찰 없이 자기 문화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이주민의 급증으로 자문화중심주의에 대한 사회적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문화도 하나의 권리라는 인식이 확장되면서 자문화중심주의로 이주민을 동화시키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이주민의 문화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4) 다문화주의 정책

국가가 인종, 성, 계급 등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소수자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적인 영역에서 표출하고 사회적 승인을 획득하게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 다문화정책의 기본 기조이다. 1960년대 이후 서구에서 등장한 다문화주의 정책은 백인 남성의 삶에 기반을 두어 구성된 시민권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백인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적 영역은 다양한 집단들의 주변화와 침묵을 강요해 왔고 또한 이들을 '동화'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인종, 문화, 성, 성적취향 등에서의 차이 때문에 이들은 시민권을 소유했지만 이를 행사할 수 없었고, 소외와 사회적 냉대를 경험했다. 즉, 여성, 흑인, 토착민, 성적 소수자 등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신분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 - 즉, 이들의 '차이' 때문에 사회적 소외감을 갖게 된다(김리카, 2002: 458). 다문화주의 정책은 기존의 시민권 모델이 문화적 차이들을 포용하거나 차이들에서 오는 차별을 완화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서구의 복지 국가들이 채택한 일종의 타협책이다. 이런 점에서 낸시 프레이저가 지적한 것처럼 전면적 시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성을 포함한 문화적 소수자들은 경제적 위계 구조에서 오는 불평등에 대한 투쟁(재분배의 정치)과 문화적 지위의 위계구조를 허물기 위한 투쟁(인정의 정치)을 상호 연결시켜 진행해야 한다. 인정의 정치는 문화적 부정의(cultural injustices)를 해소하기 위해 주류가 문화적 소수자들에게 행하는 문화적 지배, 불인정, 경멸에 문제를 제기하여 문화적 다양성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주의적 입장을 채택한 국가는 구성원들의 진정한 평등을 위해 재분배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 양자 모두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둘째로, 국가와 이주자 집단 간의 '공정한 통합'에 대한 논의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이 대두되었다. 다문화주의는 이주자들의 사회 통합이 "단번에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어렵고 긴 시간이 걸리는 과정으로서 세대에 걸쳐 작동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이민자들에게 특수한 편의(모국어 서비스 등)를 제공하고, 주류의 규칙과 상징들이 이민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은지 검토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김리카, 2002: 490). 국가가 이민자들에게 통합에 대한 공정한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주의 정책이 될 수 있다. 임시 이민자나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추방 또는 자발적 귀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적절한 사면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그들과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다문화주의 정책의 주요 논지이다.

한국 정부는 2006년 이후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선언했지만 다문화주의 정책을 채택한 나라는 아니다. 다문화란 말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은 있지만 정치적 영역에서 이주민에 대한 문화적 차별을 개선하려는 전면적인 제도를 갖춘 다문화주의 국가는 아니다. 오히려 이주민들과 일상적인 교류를 하는 민간단체나 지역에서 다문화적 감수성을 갖고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생활 세계' 속의 다문화주의

가 등장하고 있다.

3.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주제별 지향점과 고려 사항

본 절에서는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이 다문화 및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기획할 경우 프로그램의 지향점이나 고려할 사항 등의 예를 제시한다. 사회통합의 진정한 의미에 도달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이주인 여성과 원주민 여성을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원주민 여성의 수는 총 참여 인원의 30% 이상을 넘지 않게 한다.

1) 직업훈련 및 창업훈련 분야

이주자들은 그들의 희망, 학력 또는 경력과는 상관없이 유입국에 진입하면서 철저하게 동일한 탈숙련자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즉, 본국에서 학력이 높더라도 유입국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도 없고 이에 따라 학력이나 기술 능력에 적합한 직업군을 찾기도 어렵다. 언어나 생활 습관의 차이 또한 이주자들을 위축시켜 이주자들은 원주민들과 사회적 접촉이 많이 필요 없는 영역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게 된다. 이 때문에 식당의 주방, 야간 청소, 소규모 공장, 가사 돌봄, 노인 돌봄 등의 직종에 몰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고학력 전문직으로 일했던 결혼이주 여성들도 자신들의 학력, 전문성, 경험에 걸맞은 직종으로의 취업을 차단당하면서 한국에서의 이주 후에 '전업주부'나 사회적 주변부로 급속하게 전락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한국 여성과 마

찬가지로 '기혼 여성'의 자격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업종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주 여성은 전통적 이주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변부 직종에 몰리게 된다. 이주 여성의 경제적 '주류화'를 위해 정부는 여성의 출신국에서의 학력을 인정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장려해야 한다. 여성들이 본국에서 취득한 각종 자격을 인정하고 재교육시켜서 전문 직종으로 취업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해 정식으로 학력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여성의 능력에 맞는 취업으로 유도해내는 것이 '주류화 통합' 모델이다. 아직 이주 여성의 경제 주류화를 통한 통합 모델의 모형은 개발되지 않고 있지만 민간단체들의 직업 훈련이나 창업 지원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경제 주류화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이주 여성을 위한 직종 개발이나 직업 훈련의 경우 이주 여성이 갖고 있는 '사회적 조건들'(언어, 육아에 대한 책임, 이주 여성의 '에스닉'한 특징 등)을 고려하여 단순 직종이나 미용이나 네일아트, 액세서리 제작, 출신국의 에스닉 상품이나 요리 개발 등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과 외국인이라는 조건에 국한되어 직종이 개발되고 직업 훈련이 이루어지면 초기 진입을 쉽게 할 수 있으나 정형화되면 오히려 기존의 성역할을 강화하고 이주 여성의 경제적 주류화를 가로막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주 여성들의 언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주류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 예를 들어 컴퓨터 그래픽이나 고단가시장(high-end market) 예술 시장 같은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규모 융자제도(micro-credit system)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남아시아나 중국, 몽골 등은 한국보다 훨씬 많은 수의 여성들의 창업을 하고 사업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로의 진출에서 오는 심리적 제약이 오히려 한국 여성보다

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직업의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한 비교

직업이나 취업 교육 시 특정한 일이나 직업이 이주 여성들의 출신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는지에 대해 사전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 출신 여성의 경우 ‘배꼽인사’를 해야 하거나 머리를 지나치게 굽히는 서비스 직종에 대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다. 공적 영역에서 평등 의식이 강한 사회주의 국가 여성들의 경우 이런 직종의 일은 여성의 복종이나 순종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직업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다. 이주 여성이나 원주민 여성들이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기대, 보상의 수준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비교하는 준비 세션을 갖게 되면 이주여성들과 원주민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한국에서 특정 직업이 갖는 사회적 위치, 학력이나 자격증 취득 및 기술수준 정도, 직업 전망 등에 대해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직종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하게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② 기초 경제 교육 및 노동법에 대한 이해 교육

이주 여성들은 한국의 수량이나 계량 단위가 다른 문화권에서 왔기 때문에 기초적인 경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금, 적금, 신용카드 사용법이나 세금 관련한 경제 기초 교육을 통해 자신이 번 임금의 수준을 이해하고 소비와 저금 등에 지출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또한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여성들이 취업 시 자신들의 준수해야

할 법이나 지켜야 할 권리 등에 대해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의식: 배려와 평등

이주여성들의 직업 교육 시 고려해야 할 점은 ‘평등’과 ‘배려’의 관점을 어떻게 적절하게 발휘하여 여성들이 참여의식과 직업의식을 강화하느냐는 점이다. 한국 일터의 노동 강도와 작업 속도, 장시간의 근무 등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 이주 여성이 취업 후에 한국 근로자에게 거는 ‘기대감’만큼의 일을 해 내기가 쉽지 않다. 이주민과 원주민이 함께 일하는 공동 사업장의 경우 둘 사이에 갈등이나 반목이 심한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주 여성들의 정시 퇴근이나 개인화된 작업 방식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주여성은 영원한 ‘배려’의 대상이 아니고, 직업인으로서의 실력과 직무태도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 퇴근에 대한 가족 내 압력이 심하다는 점과 가족 내에서 수행해야 할 다중적 역할에 대한 심리적 압력이 강하다는 점 등에 대해 원주민 동료나 상관들을 이해시키는 것 또한 민간 지원 단체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다. 상호 갈등을 해결하고 인식과 경험의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다문화적 감수성’과 ‘양성평등’ 및 ‘외국인/이주민의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일터로의 변화가 이뤄날 수 있다.

2) 가족통합 및 사회정책 분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 여성에 대한 통합 및 사회 정책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행사, 나들이, 이벤트 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이주 여성을 교육의 ‘대상자’로만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통합의 진정한 의미가 이주민과 원주민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평등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소통’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을 한국 문화에 동화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재문화화(re-culturalization)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족 내에서 뿐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사회 내에서 쌍방향 문화이해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이주 여성으로 경험하는 거대한 문화 충격과 체류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 배우자와의 다층적인 갈등 등 이들의 실존적 문제들로 인해 이주 여성들이 원주민들과 마음을 열고 교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주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소소한 문제들부터 사회적,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여성들의 사회 통합을 위해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모국어로 정보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의 개발이나 사회적 ‘장’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언어적 한계’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대표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이주 여성들에게 사진이나 영상 교육을 통해 표현의 기술과 통로를 제공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존적 어려움에 있는 여성들에게 카메라는 일종의 ‘위로’의 역할을 해주고, 신뢰에 기반을 둔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깊은 속내가 펼쳐질 수 있는 문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 아니었으면 서로 은폐시키거나 피해 갔을 일을 진지하고 솔직하게 펼쳐 놓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상 교육은 단순한 ‘셀프-카메라’적 자기도취나 고백이 아닌 새롭게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원들을 여성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만든 영상물을 함께 보며 원주민들 또한 새로운 관점으로 이주 여성을 이해할 수 있다. 영상 교육

은 이주 여성에게 ‘소통’의 채널들을 확장시키고, 지역사회의 역량 있는 문화 생산자로 변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민간단체에서 많이 수행하는 다문화강사 교육은 직업교육과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그 효과가 크다. 다음은 <다문화, 다함께> 사업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나 민간단체가 수행한 프로그램의 예를 통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취지와 의의를 살펴본다.

① 이주여성들의 소통 온라인 채널

: 망고넷 (www.mangonet.kr)

한국여성재단의 <다문화, 다함께>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망고넷은 이주 여성들이 모국어로 실존적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이다. 아시아의 창에서 운영 중인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정보사이트 망고넷 (www.mangonet.kr)은 임신 중 망고를 먹고 싶어하는 베트남 여성의 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망고넷으로 명명했다고 한다. 망고넷은 모국어를 통해 고향의 정서를 제공하고 여성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성들은 육아, 교육, 남편과의 관계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고 동시에 자신의 경험을 다른 여성과 공유함으로써 ‘사적인 문제들’을 해결해간다. 동시에 한국에 정착, 체류 시 필요한 각종 법적 정보들을 얻게 되어 공적인 영역에서 이주 여성의 위치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주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과 가능성에 대한 폭넓은 소통을 경험한다.

② 비언어적 매체 활용을 통한 사진, 영상미디어 교육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수행한 사진 교육이나 서울여성영화제에서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이주여성미디어워크숍>,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가 진행한 <영상워크숍>등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 생산을 통한 자기 목소리 내기

여성들이 만든 사진이나 영상물 중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관련해 성찰하는 '자기 드러내기 / 자신의 목소리 내기' 유의 작품이 많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인 투씨가 만든 영상물인 <내 이름은 투다>는 어떤 과정을 통해 결혼이주를 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서의 기대, 실망, 좌절, 협상 등은 무엇이었는가를 담담하게 보여줌으로써 한국인들에 대해 '나를 당신들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나의 관점에서 보아 달라' 고 제안한다. 특히 이야기의 주안점은 '이방인' 으로 한국에 와서 살면서 느꼈던 기대와 두려움 등의 정서적, 감정적 영역의 변화들을 민감하게 포착한다. 투씨는 남편에게 오로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초기 정착 과정에서 집에 혼자 있기가 두려워 버스 운전기사인 남편의 버스를 타고 매일 밤 서울 시내를 누볐다. 이 영상에서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고 의존적이었던 투씨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회와 관계를 맺게 되면서 '사적인 자아' 에서 '공적인 자아' 로 자신의 모습이 변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현재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투씨는 그 과정에서 하노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베트남 이주 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 영상에서 투씨의 정체성은 극적인 계기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 여성의 관점에서 한국에서의

삶의 다층성과 기대들, 가능성들을 이주여성으로 한국 사회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이는 대상' 으로의 이주 여성이 아닌 실제적인 삶의 체험자이며 행위자로서의 자아를 드러내며 한국 사회에 말 걸기를 시도한다. 사진과 영상 작업에 참여한 여성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좀 더 확고한 자기 결정권과 한국사회에의 소속감을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2) 문화번역자로서의 위치 및 인식 변화

영상 프로그램에 참가한 여성들이 꼽는 가장 큰 변화는 이들이 한국 문화나 생활에 열심히 '적응' 하는 자의 위치에서 이제 한국과 모국의 문화를 연결하고 해석하는 문화번역자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들은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한국 사람들 뿐 만 아니라 모국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이나 삶이 그저 어렵기만 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서 사진이나 영상물을 찍기 위해 한국 사회의 '일상들' 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한국인들 간의 지역, 세대, 빈부, 남녀 차이들에 따른 다양한 삶들에 대해 매우 예민한 관찰과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방일로나씨는 사진을 찍을 때 자신의 모국에서 볼 수 없었던 '한국적' 일상을 포착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했다. 예를 들어 그의 사진 작품에서는 주변의 소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들 것 같은 집중력으로 책을 읽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 한국의 고구마 굽는 기계, 식당에 진열된 모형음식, 다양한 종류의 한국 떡 등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런 사진들을 본국에 소개하면 한국 사회에 대한 흥미로움과 지극히 현실적인 일상들을 알려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즉, 한국 드

라마에서 보여주는 ‘미디어화된 풍광이나 화려함’ 보다는 한국인들이 만들어내는 소소한 일상들을 소개하여 한국 문화를 현실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영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은 전에는 자신을 ‘한국에서 살기에 부족한 외국인’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본국과 한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소통자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 작업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과 현장을 포착하게 되었고, 이런 깨달음이나 배움의 경험은 단순히 한국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확장하는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한국을 잘 모르거나 편파적으로 이해하는 자신의 모국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한다. 자신이 만드는 사진이나 영상 작업이 한국을 알리는 좋은 자료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학습 동기를 유발시켰다고 한다.

(3) 문화 생산자로서의 커리어 개발

〈영상교육 프로그램〉은 결혼이주 여성의 공적인 자기표현과 참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여성들이 ‘이주여성이란 존재 자체’ 만으로 공적 영역에 등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전망이 될 수 없다. 이주여성이 더 이상 ‘색다른 존재’가 아니고 이주 여성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가 강한 상황에서 이주 여성 또한 스스로 자신을 개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 프로그램은 여성들의 공적인 자아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었을 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고립돼 있고 본국에서 학력 수준이 높지 않은 여성들에게 한국에서의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성들이 만든 영상 작품 중에는 이주 여성의 일상을 그려낸 작품뿐만 아니라 독창성과 위트로 만들어진 창작물도 많았다. 예를 들어 키르키르스탄에

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전 한국에 온 이주여성 나리씨는 모국에 있을 때 디지털 카메라나 비디오로 작업을 한 적이 없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사진이나 영상의 의미에 대해 학습했다. 그는 우선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깊은 생각을 넣어요.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은가”를 고민하여 이 작업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시나리오 만들기, 역할 연습, 배경 장치 등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한다. 영상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생각을 넣는다는 것의 의미를 파악한 그는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에서 일하면서 광고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구체적인 커리어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다양한 현장에서 배우는 자세로 많은 것을 학습하고 관련 공부들을 하고 학교에 진학하여 한국에서의 ‘커리어’를 쌓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나리씨와 마찬가지로 이주 여성들은 ‘셀프-카메라’식 자기 드러내기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커리어 개발과 프로그램을 연결시켜 사유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이 모국에서 가능하지 않은 사회적 위치를 여성들에게 부여하면서 이주를 통해 더 나아진 삶을 꿈꿨던 여성들의 희망을 일부 실현시켜 줄 가능성이 높다는데 의의가 있다.

③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지도사 교육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 및 프로그램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인 지역 사회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형태로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것을 장려하고 고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여성들은 지역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다문화강사 및 지도사〉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주여성들은 고립된 자아에서 공적인 활동가로의 자아를 갖게 되어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구성원

을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문화적 정체성과 자존감의 회복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 내에서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문화적 동화의 압력과 다양한 사회·문화적 차별에 시달리면서 여성들은 심각한 심리적 갈등에 시달린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 여성들이 행하는 전략 중 하나는 자신이 국제결혼을 한 이주 여성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한국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특히 외모로는 한국인과 구별이 잘 안 되는 중국 여성들인 경우 한국어를 잘 하게 되면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생겨난다. 다문화강사로 활동하면서 여성들은 자신의 본국 문화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고 가르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을 회복했다. 사례 A씨는 중국 한족 여성으로 지난 10년간 “한국에 적응하면서 한국 사람인 척” 하고 살아왔다고 한다. 안산에서 양산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에는 고립감과 외로움에 시달려야 했다. 웅상 센터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교육을 통해 <무지개사업단>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후 한국여성재단이 진행한 <다문화, 다함께> 사업에 참여한 웅상센터에서 1년간 다문화강사와 활동가로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아이들과 주변 한국인들에게 ‘중국인’이란 사실을 알리고 문화적 자존감을 회복했다고 한다. 사례 A씨는 자신이 당하는 차별적 시선이 자기 아이들에게 ‘대물림’ 되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에게 엄마 나라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그러나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며 한국 사람들에게 중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모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한다. 전에는 자신을 ‘부족한, 언제든지 들킬 수 있는 한국인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본국과 한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소통자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이런 변화를 다른 이주 여성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서 자신의 역할을 찾게 되었다. 또한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중국인들에게 통역이나 상담을 지원하면서 중국인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2) 공적 자아의 개발과 확립

결혼이주 여성의 공적인 자기표현과 참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은 여성들의 세력화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승인과 인정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여성들이 ‘이주여성이란 존재 자체’만으로 공적영역에 등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전망이 될 수 없다. 이주여성이 더 이상 ‘색다른 존재’가 아니고 이주 여성에 대한 만연된 이미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주 여성 스스로 자신을 개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강사> 프로그램은 여성들의 공적인 자아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었을 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고립돼 있고 학력 수준이 낮은 여성들을 ‘역량 있는 교사’와 ‘학습자’로 변화시켜냈고 지속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베트남 여성인 사례 C씨는 베트남에서 중학교를 완전히 마치지 못했고, 자신이 누구를 가르쳐 본 경험도 없고,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다문화강사> 프로그램을 통해 ‘선생님’의 위치에서 베트남 문화를 가르치면서 자존감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기쁨을 느꼈다. 외국인 머느리란 시선에서 무언가를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으로서의 위치로의 변화는 이주 여

성들에 대한 한국인의 시선과 관심의 내용을 전폭적으로 변화시켜낸다. 이를 통해 지역민으로서 또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자로서의 자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프로그램이 모국에서 가능하지 않은 ‘선생님’ 또는 ‘활동가’ ‘상담사’라는 사회적 위치를 여성들에게 부여하면서 이주를 통해 더 나아진 삶을 꿈꿨던 여성들의 희망을 일부 실현시켜 준 측면이 있다. 특히 학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헌신과 교육을 통해 이주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변화시켜나가는 추동력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3) 이주여성들 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연대 의식의 함양

현재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한국어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중 상당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무시하고 한국에의 빠른 ‘정착’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똑같은 현상과 경험일지라도 각자가 문화적으로 학습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다국적의 이주자 여성들 간에도 문화적 차이와 서로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이주 여성들 또한 경제력이나 규모에 따른 국가 간 위계 구조를 내재화하여 국적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갖는 경향이 있다. 한국 문화를 빨리 배워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이주 여성들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다문화 강사 교육 및 활동을 통해 다른 국가 출신의 여성들과 상호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이주 여성들 간의 ‘다문화감수성’이 생겨났다. 무엇보다도 <다문화강사>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공동적 이해관계와 목표를 지닌 학습자, 동료이며 협력자로 활동한다는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여성들 간의 편견과 차별을 줄여나가고 연대 의식을 만들어

나갔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나라의 여성들이 강의하는 것을 함께 보면서 그 나라 문화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다문화 교사의 교재를 함께 만들고 서로 질문을 하고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깊어졌다는 것이 큰 교육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성들 각자가 가지는 문화적 차이들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서로간의 소통과 네트워킹의 필요성을 이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국적이 다른 이주 여성들의 정서적, 경제적, 인지적 연결망을 만들어내면서 ‘자조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있다.

(4) <다문화강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고려할 점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교육과 직업 훈련이 가지는 궁극적 목적은 교육 참여자들을 다문화적 감수성에 따라 행동하는 시민으로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 사회의 전 영역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주여성들은 개인마다 다양한 능력과 교육 배경을 가진 존재로서 이들이 언어적인 한계를 극복한 경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각 여성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이 전문가로서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교육자’로서 등장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이주여성에게 주류 사회 진입에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선의의 감정을 품고 있는 한국인들조차도 이들을 주변인의 위치, 희생자 또는 약자의 위치에 놓고 관계를 시작하기 때문에 상호 영향력을 끼치는 평등한 관계로 전환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언어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결혼이민 여성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인 지역 공동체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다양하고 적극적인 형태로 드

러내도록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깨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변화에 헌신할 수 있는 구조 마련에까지 그 기대지평을 넓혀야 할 것이다. 현재 <다문화강사양성교육>의 대부분은 이주 여성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국 문화를 소개하는 강사의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향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성인들- 이주여성 남편, 지역 공무원 및 단체장, 교사, 단체 활동가, 법률관련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기획되는 다문화 교사 양성과정은 유치원생부터 일반 사회구성원들까지 다양한 한국사회 구성원들과 다문화 강사들이 직접적인 대면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대상자들의 연령에 따른 교구 및 교육 내용의 연구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단체의 상근 활동가들이 프로그램 운영과 진행에 있어 이주 자들과 공동 작업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지속시키는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해 나가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및 예술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3) 아동청소년 다문화교육 분야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관심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 관한 것이다. 한편으로 자녀들이 ‘혼혈’이라는 이유로 당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해 한국 사회의 성찰성을 일깨우는 문제의식부터 이들의 부적응이나 사회적 고립이 낳을 수 있는 ‘문제’ 까지 관심의 이유와 해결 방안 또한 매우 이질적이고 다

양하다. 이런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최근 민간단체와 학계에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과 프로그램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대만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의 우생학적 열등성을 내포하는 담론이 급격하게 설득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대항으로 양식 있는 이주 지원 단체와 학자들의 운동 또한 생겨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주여성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이들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을 인정하여 개선해나가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담론의 ‘효과’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성찰적인 자세를 갖는 것 또한 중요하다. 현재 민간단체와 학계, 교육계가 진행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이러한 우려에서 시작하여 ‘문제’를 발견하거나 전제하며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가장 흔한 문제의식은 이들의 부/모, 특히 어머니가 외국인 결혼이주자나 노동 이주자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없고, 한국어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과 후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거나 사회에서의 심리적 부적응이 학력 저하의 요인이 되므로 다양한 심리 상담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 한국 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 등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단일문화의 한국가족과 비교해서 특별히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기 전에 이들에 대한 ‘낙인’과 ‘주변화’가 쉽게 이루어지면서 ‘처방적’ 프로그램이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어떤 학교에서는 결혼이주자 자녀들만을 따로 불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자신이 남과 ‘다르고’ ‘열등하며’ ‘보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편견을 내재화할 수도 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출발한 청소년 교육과 지원도 주류의 입장에서만 사고하면 이들에 대한 차별을 지속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나 청소년이 당면하는 문제는 자신들을 ‘구별’ 하는 데서 비롯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빈곤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아동 청소년 다문화교육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프로그램의 목적을 서술하는 것부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전 과정에서 문화적 민감성이 요구된다. 아동 청소년 다문화교육프로그램 기획 시 ‘부정적이거나 우려적인’ 언어를 되도록 줄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낙관적인 사고와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기획서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참고할 자료들

1) 한국어 교육

장미영, 이수라, 고은미 지음, 2008, <다문화사회 바로서기: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적응교육 프로그램 연구, 257쪽> :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은 한국어의 체계적인 교육 및 교수법을 위한 문제 분석과 제안들이 담겨져 있다.

2) 이주 여성의 출신국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8, <아시아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말 걸기>: 이 책은 중국, 몽골,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국가 정보와 문화적 특징들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119쪽의 분량으로 이주 여성 관련 활동가와 단체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기

좋은 교재이다.

3) 영상 미디어 교육

<영상미디어교육>의 목표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미디어 교육을 통해 자신의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사회와 소통하는 통로를 모색하도록 돕는 것이다. 서울여성영화제 주최로 김진열 감독이 매년 진행하고 있는 <이주여성미디어 워크숍>을 통해 제작된 영상물들은 훌륭한 교육 자료이며 동시에 이주 여성들에게 영상 미디어 교육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준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영상물 시디를 무료로 제작 배포하고 있다.

4) 아동 다문화교육

다음세대재단 올리볼리(www.ollybolly.org) 그림동화는 온라인상에서 베트남, 필리핀, 몽골의 동화를 한국어, 자국어, 영어 등 세 가지 언어로 들려주고 있다. 또한 동화에 나오는 지명, 인명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첨부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게는 ‘엄마 나라 동화 들려주기’와 같은 효과를, 원주민 아동에게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아동 다문화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좋다.

청소년을 위해서는 (재)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되도록 많이 제공한다.

5) 상담 및 멘토 교육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발행된 <적응과 폭력사이에서: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상담사례 모음, 294쪽>이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지난 몇 년간 상담 사례와 진행과정과 문제 분석, 과제를 상세히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주여성을 상담하는 활동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매뉴얼일 뿐 만 아니라 이주여성들을 상담원으로 교육시키는데 활용하기에 매우 좋은 자료이다. 특히 자조그룹 모임이나 이주 여성과 원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교육의 조별 활동에서 활용하면 매우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5. 결론

지난 15년간 결혼 이주 여성들의 급증은 한국 사회를 역사상 어느 때 보다도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주 여성은 여전히 한국 내 문화 소수자이며 이들의 가족 또한 '다문화가족'이란 범주로 묶이면서 새로운 사회적 편견에 직면하고 있다. 언어나 생활습관상의 차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아직은 '서투르고' '수동적'이며 의존적으로 보이는 이주여성들은 실제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실천가이며 기획자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는 이들을 새로운 시민으로 바라보며 이들이 주류사회에서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하며, 동시에 외국인에 대한 문화적 편견을 줄여나가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에 지금보다 더 많이 힘써야 한다. 다문화, 성평등 관점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주여성 and 원주민들과의 상호적이며 평등한 교류를 확장시켜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에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다문화, 성평등적 관점의 프로그램 개발은 이주여성 and 원주민의 상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의 채널을 마련하고, 이주 여성의 주류화를 위한 역량 강화에 목표를 둔다.

6. 참고문헌

- 김영옥. 2007.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46-2: pp. 129~160
- 김현미, 2008,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26
- 김현미, 김영옥, 김민정, 2008, 『생활세계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사례연구 및 적용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오경석 외 지음.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아카데미.
- 마르티니엘로, 마르코. 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윤진 역. 한울.
- 문경희.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현상.” 『21세기정치학회보』. 16(3): 67~93.
- 오경석. 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오경석 외 지음,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아카데미.
- 김리카 · 월. 2002(2006).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장동진 외 역. 동명사.
- Castles, Stephan and A. Davidson, 2000, Citizenship and Migr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ymlicka, W. 2005.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Clarendon Press.
- Smith, Michael and L. Guarnizo, 1998, Transnationalism from Below, Transaction Publishers

II부는 한국여성재단이 진행한 아이다 마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주체성 변화와 더불어 ‘공간’으로서의 아이다마을이 갖는 의미를 성찰하고자 한다. 실천과 실험의 장인 아이다마을을 대중적으로 소개하며, 그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II

인정투쟁 공간으로서의 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 : 아이다마을을 중심으로

김영옥(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객원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2. 다문화공간으로서의 아이다마을
 - (1) 다문화주의 비판
 - (2) 다문화주의에서 다문화공간으로
 - (3) 인정/투쟁의 공간으로서의 다문화공간
 3. 아이다마을: 다문화 윤리에 입각한 인정투쟁의 장소
 - (1) 아이다 마을 구성과 공동체 목표
 - (2) 아시아 이주여성들의 ‘모국센터’로서의 아이다마을
 - (3) 이주여성들 사이에 배치된 위계와 차별을 지양하다
: ‘우리 이주 여성’의 집단적 정체성 확보
 - (4) 생활세계의 다문화 생산주체: ‘교사’가 된다는 것의 의미
 - (5) 남편들의 다문화가족 의식강화: 아이다마을의 상징적 의미와 지역
사회 내 다문화가족 간의 실천적 효과
 - (6) 종족 공동체를 넘어서: 초국적 다문화 소수자 집단 의식으로
: 보유, 야마다 다카코 씨의 인정투쟁
 4. 나가는 말
 5. 참고문헌
-

1. 들어가는 말

1990년대 이래 다양한 국가로부터 점점 더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재적 과제와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가 무성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도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을 폭넓게 실현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단위로 세워졌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사회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대로 답변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 다문화교육, 다문화여성 등 다문화와 결합된 어휘들이 늘어나고 있는 정황은 다문화적 환경의 정착을 역설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한국 선주민뿐만 아니라 이주민들 또한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이라는 사실은 대중적 의식의 차원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그와는 반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과 그들이 한국 선주민과 함께 구성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즉 특정한 결핍을 지닌 사회적 약자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언설 뒤에는 한국사회의 주류문화는 바뀌지 않은 채, 단지 이방인들을 관용이나 동화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려는 의식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통치전략이나 시민적 관행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해 온 여성들은 가족, 친지, 동료 등의 준거집단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 부분 강제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는 동화의 과정을 헤쳐 나가야 한다. 그리고 동화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해도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성원권은 여전히 조건적이고 불완전하다. 언어소통의 문제 뿐 아니라 유교문화와 부계 혈통주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하에

서의 소비문화와 경쟁위주의 교육제도 등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지속적인 고립과 사회적 불안을 겪을 확률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상이한 국가에서 온 다른 이주 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이주 여성’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구성해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활동가들과 시민 사회 의제를 논의하고 신념을 공유함으로써 ‘활동가’로서의 의식을 일깨우는 공간은 이주여성들의 정체성 구성과 한국사회로의 주체적 통합에 매우 중요하다. 이곳은 ‘이주여성’이나 ‘다문화 가정’이라는 기호의 해석을 독점하는 주류사회에 대항해 상징적·문화정치학적 투쟁이 벌어지는 공간이며,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만남과 행위가 실천되는, 다시 말해 다문화적 태도가 학습되고 체화되는 장소이다. 이주여성들이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모든 기관이나 단체가 이런 공간/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식의 지향성과 심리적 애착이 동시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이런 공간/장소로 기능하는 공동체는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해 이주민의 인정 투쟁이 벌어지는 적합한 문화적·정치적 장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상이한 단체들이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통합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다. 언어교육, 한국 문화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강사 교육 프로그램, 취업준비프로그램 등이 펼쳐지는가 하면 당사자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자조그룹 결성 등이 모색되어 왔다.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궁극적으로 이주여성들이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는 문화권을 갖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들이 평등하고도 온전한 시민권을 누리며 지역사회의 중요한 행위주체로 참여하는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단체들이 추진하는 프로그램들 간의 역동적인 결합이나, 각

단체들 간의 생산적인 협조체제는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종종 상이한 욕구와 필요를 가진 다양한 계층의 이주여성들을 포괄하기보다는 소수 이주여성들의 교육 집중화를 낳는다.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서로 보완적 관계 속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통합됨으로써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면, 교육의 집중화 자체가 문제적일 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경우 단체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 열악함은 참가자들의 욕구나 필요 등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면밀히 조사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시키기도, 프로그램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상호관계적으로 통합시키기도 역부족이다. 동기부여가 확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참여는 참여자들 사이에, 그리고 참여자들과 프로그램 운영자들 사이에 일정부분 상호이해와 공감의 형성된다고 해도 지속가능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욕구와 필요, 프로그램, 효과 사이의 선순환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이 요구된다. 선순환적 흐름은 구체적으로 첫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가적 지식을 확보하여 경제 및 사회문화 영역에서 주류화를 이뤄내는 것, 둘째 자신들이 받은 교육과 훈련을 다른 후배 이주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재투자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다문화사회의 평등한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마을’이라는 (비록 3층짜리 건물에 지나지 않지만) 물리적 장소가 마련된 상태에서 언어교육, 취업준비 프로그램, 다문화 강사양성 교육 프로그램, 자조그룹 결성과 역량강화, 당사자 활동가 양성, 상담교육 등을 아우르는 아이다 마을 ‘프로젝트’는 그동안의 활동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며 새로운 단계로의 모색이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다른 단체들이나 활동가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아이다 마을은 기본적으로 이주여성들

이 한국의 선주민들과 똑같은 성원권을 누리며 공동체 발전에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을 지향한다. 동등참여와 동등기여를 중요시 여기는 아이다 마을의 이러한 성원권 원칙은 다문화사회의 주체와 관련해 시사점을 던진다. 이주여성이 과도기적인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나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다문화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주체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역량강화와 인정투쟁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주여성들은 여전히 계급과 자본에 의해 이방인들의 서열을 매기는 주류사회의 시선에 의해 지속적으로 타자의 위치에 머물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인천 여성의 전화가 추진하는 “아시아 이주여성들의 다문화 마을”(이하 아이다 마을)을 예로 들어 이주여성 공동체가 역량강화와 인정투쟁이 일어나는 장소로서의 다문화공간이 되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¹⁾ 필자는 2009년 아이다 마을의 다문화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아이다 마을의 초기 형성과정을 집중적으로 참여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이주여성들의 남편 2명 및 아이다 마을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조그룹인 필리핀 공동체(다마얀)와 베트남 공동체(궁남따이), 그리고 중국 공동체(수퍼우먼)의 대표들과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본 연구는 그러한 1년간의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에 기초한다.

1) 아이다 마을은 2009년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13개사)의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좀 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수개월, 혹은 1년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여타의 이주여성관련 단체 활동과는 달리 지속가능한 계획과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됨으로써 타 단체나 관련 기관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 다문화공간으로서의 아이다마을

(1) 다문화주의 비판

그동안 한국사회에 새로운 시민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주민들과 한국사회 선주민들과의 관계를 두고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 왔으며, 그 논의들의 중심에는 동화주의나 다문화주의나 라는 이분법적 범주와 통합이라는 보다 합명제적 느낌을 강조하는 개념이 작동해 왔다. 그러나 동화와 다문화는 결국 사회를 통합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통치전략의 두 방식을 의미한다. 즉 통합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동화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는 인종적·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의 인정을 의미하지만 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과 이의 통제에 관한 자본 및 국가의 입장을 반영한 이데올로기적 성격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민자들을 기존 사회 및 정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다문화주의는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소수자 집단들을 국가 사회에서 인정해 주고 보호해주는 권리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통합의 방식에 있어 일방적이거나 경제적 차원을 배제한 것이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국적인 요리, 음악, 다채로운 축제, 의례 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주의의 피상적인 홍보는 상실, 빈곤, 차별 등 소수자 집단이 겪는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을 은폐할 수 있다(김영옥, 2007: 140). 다문화주의는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고취시키고 사회-공간적 결속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규범적 이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초국적 자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교리 또는 전략이 되기 쉽다.

이와 관련해 지젝(Zizek)은 다문화주의를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적 논리이

며 ‘부정된, 역전된, 자기-준거적 형태의 인종주의’, 즉 ‘거리를 둔 인종주의’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지구적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이상적 형태가 바로 다문화주의이다. 다문화주의란 일종의 텅 빈 지구적 위치에서 마치 식민자가 식민화된 사람들을 다루는 것처럼 - 주의 깊게 고찰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관습을 지닌 ‘원주민들’로 - 각 국지적 문화를 다루는 태도이다”(Zizek, 1997: 44). 그러한 ‘보편성의 특권화된 텅 빈 지구적 지점에서’ 다문화주의는 다른 특정 문화들을 적절하게 전유하고 그리고 평가 절하한다. 결국 타자의 특이성에 대한 다문화주의자의 존중은 그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웬디 브라운(Wendy Brown)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확산되고 있는 관용 담론의 정치적 성격과 효과를 질문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관용은 특히 9.11 이후 갈등과 차별이 심각해지는 현실 속에서 갈등의 조절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주의의 기획과 결합하면서 위협적인 내부의 타자를 편입시키고 규제하는 통치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용은 그 대상이 되는 요소를 주류 안으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그 대상의 타자성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타자성의 관리 방식이다. 대상은 주류 전체의 내부로 편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타자로 표시된 존재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다문화주의의 관용 담론은 이처럼 특정한 집단이 완전한 평등을 얻기에 부적절하다고 표시될 때 평등과 시민권에 대한 자유주의 정식 대신 일종의 대리보충으로 기능한다(브라운, 2006).

그러나 다문화주의를 채택했던 나라들이 최근 들어 이주민들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의 인정을 위해 마련했던 다문화주의 정책들을 보수적인 방향으로 철회하거나 바꾸고,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하는 현상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윤리적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문제는 다문화주의 자체,

다시 말해 다양성과 차이의 인정이라는 기본 이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이 평등한 참여에 관한 정치적 논의를 비껴가고, 다문화주의가 초국적 자본주의 문화공간에 관한 이데올로기로 작동되는 방식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지구화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구-지역적 윤리로서 다문화주의적 태도를 재의미화하고 '인정의 공간'을 위한 투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이것은 '다문화공간'에 대한 의미화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문화주의에서 다문화공간으로

최근에 공간과 장소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해지면서 인문지리학자들은 다문화사회라는 개념 대신 다문화공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국제이주 및 이주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정은 공간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최병두, 2009; 박배균, 2009). 다문화공간은 균등하지 않게 발전한 지구공간에서 축진된 자본의 이동과 노동의 이동이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이 공간에는 계급적 측면이 본래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공간을 인정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윤리적 명제에 기초한 정치적 투쟁의 과정이다. 이것은 우선 공간 혹은 장소를 윤리적으로 사유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르페브르(1990)는 이원론에 입각한 서구의 근대적 공간 이해를 비판하면서 공간을 사물들과 사람들의 관계로 규정한다. 공간은 사회적 생산의 결과물로서, 이윤추구를 향한 경제활동이나 노동착취를 위한 사회적 통제 역시 공간적으로 발생한다. 하비(1996)는 근대를 특징짓는 진보적 역사관이 토대로 삼고 있는 시간관, 즉 공간에 대한 시간의 특권화를 비판하면서 '공간적 전환

(spatial turn)', 즉 사회를 공간적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관점을 제시한다. 지구화를 설명하면서 학자들은 지구화가 근본적으로 공간적 현상이라는 것, 따라서 지구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것에 대한 공간적인 것의 주도성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했다(Dirkik, 2001; Jessop, 2002).

'사회를 공간적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물이나 사람들을 그들 상호간의 공간적 관련성에 기초하여 이해하게 만든다. 여기서 공간은 사물과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소멸한다. 이러한 공간이해는 대안적인 사회-공간적 윤리를 추동시킨다. 사물의 내재적 관련성에 입각한 공간적 질서는 안정적이며, 이러한 사회-공간적 관계는 존재론적으로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공간적 개념화를 통해 우리는 또한 사회적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사회적인 상호행위가 사회-공간적 구조의 형태를 띠게 되며, 이러한 구조는 다시 상호행위의 조건으로 작용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구조화된 사회-공간적 체계는 가변적이고 역동적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분절적이며 장소-특정적으로 작동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행동은 사회적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공간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재생산하게 된다"(최병두, 2009: 637). 여기서 형성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는 공간은 그 공간을 생산하고 공간에 의해 또한 생산되는 사물이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물이나 사람들이 위치해 있는 장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의 아이다마일은 물리적으로 볼 때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이주여성들이 여성주의적, 초국가주의적으로 마련된 공간적 세팅 하에 서로 관계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이 공간은 특정한 의미를 부여받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중요한 장소가 된다. 아이다마일을

두고 마석의 필리핀 노동자 집단 지역이나 가리봉동이나 대림동의 조선족 집단 지역과 같은 차원에서 지역적 차이나 장소성을 언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이다 마을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상호관계가 독특한 구조와 그로 인한 맥락적 동력을 생성해낸다면 아이다 마을의 장소성은 분명해질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장소에 대해 이주민들이 갖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감은 어떤 성격을 띠는가, 어떤 이념적, 실천적 목표를 공동으로 지향하는가, 이다. 아이다마을이라는 이 장소를 그것의 구성요소로 환원할 수 없게 만드는 역동성과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한 역동성과 의미의 일부는 이 장소에서 공동체적으로 논의되고 모색되는 인정투쟁의 지평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아이다 마을’에서 장소로서의 ‘마을’은 ‘상호인정의 공간으로서의 다문화공간’이라는 공간적·상징적 의미도 지니기 때문이다.

(3) 인정/투쟁의 공간으로서의 다문화공간

이주의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공간은 제3세계 국가의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로 움직인 초국가적 공간 이동과,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과정에서 파생한 인종적·문화적 혼합에 따라 형성된 사회 공간이다. 다문화공간은 다문화사회라는 개념을 공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다시 말해 다문화사회를 공간-사회적 관계들로 이해하는 것이다. 앞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다문화공간은 인정의 공간이다. 여기서는 서로 다른 인종, 성, 언어, 특성들을 가지는 개인이나 집단들의 활동과 이들의 사회-공간적 정체성이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지구화가 가져온 문화적 교류와 혼합의 현상 및 그와 관련된 규범과 정책은 지구/지역적으로 다양한 다문화공간을 형성한다. 다문화 공

간은 관련된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에 영향을 끼치는 초국가적(transnational) 네트워크 공간이며 기존의 권력관계와 협상이 벌어지는 공간이다. 이곳은 또한 기존의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더불어 새로운 윤리의 정치가 요구되는 사이(in-between)공간이다. 인정의 공간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윤리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악셀 호네트의 인정이론과 프레이저의 인정 논의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악셀 호네트에 의하면 상호인정으로서의 인정은 사랑, 권리, 연대의 세 층위에서 일어난다. 사랑의 층위에서 주체들은 구체적 욕구를 지닌 존재로 서로를 인정한다. 권리의 층위에서 모든 구성원들은 동일한 법에 종속됨으로써 서로를 자주적 위치에서 도덕규범들을 이성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로 인정하게 된다. 여기서 도덕적 판단능력이 있(다고 가정되)는 인격체의 지위는 누가 결정하는가, 의 문제가 생긴다. 마지막 인정관계는 상호주관적으로 공유된 목적이나 가치지평을 전제로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특수한 능력과 가치를 인정하는 연대이다. 이 세 인정관계 모두에서 인정투쟁은 ‘주격 나’와 ‘목적격 나’의 갈등으로 진행된다. 즉 상호주관적 정체성은 나에 대한 타인의 관점을 내면화하는 한편, 그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의 요구를 주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호네트에 의하면 주체들은 이러한 인정투쟁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확대하고 새로운 규범을 창조해나간다(악셀 호네트, 1996)

프레이저는 호네트가 인정의 문제를 자아존중이나 자존감 등 자아실현이라는 심리적 문제로 환원시킨다고 비판하면서 재/분배의 정치(politics of re/distribution)와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를 ‘동등 참여(participatory parity)’라는 정의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재분배와 인정은 동등한 참여에 내포된 두 가지 다른 차원의 문제로 해석된

다. 동등한 참여를 위해서는 각각의 참여자가 독립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물질적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동시에 문화적 차이가 인정되어야 한다. 사회생활에 동료로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거나 차별하는 문화적 가치들의 제도화된 패턴에 대해 프레이저는 긍정적 전략(affirmation)과 변형적 전략(transformation)을 동시에 추구할 것을 제안한다. 긍정적 전략이 집단적·문화적 특질을 인정받아 주류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된다면, 변형적 전략은 집단 문화 정체성을 규정하는 재현의 언어 자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과 관련된다(Fraser, 2003). 이것은 문화를 그 내부에 헤게모니 투쟁과 갈등을 안고 있는 모순되면서도 역동적인 복합체로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이다. 다문화주의나 차이의 정치는 종종 문화를 하나의 본질적인 통일체로 간주하면서 변화 불가능한 박제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프레이저가 제안하는 차이의 인정과 동등한 참여는 다문화주의가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귀기울일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집단의식은 용어의 해체나 보다 급진적인 정치적 용어의 선택만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행적 실천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다. 민주적 실천과 담론의 윤리에 입각한 토론과 대화 또한 동일한 권력조건 하에서 상호작용하는 주체들 간의 소통이 보장되지 않을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한 사회 내에도 다양한 소수 집단이 있으며, 하나의 소수 집단 내에도 또 다양한 하위 집단들이 있다. 성원권의 문제는 인정의 층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

한국사회의 경우에도 이주민 집단은 위계질서 하에 배치된 다수의 하위 집단을 포함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더 주변화된 위치에 있으며, 결혼이주여성들 중에도 다양한 문화적 특질에 따른 차별이 작동되고 있다. 개인적·집단적 정체성의 상호인정을 실천하는 인정의 공간은 사회-공

간적 기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실천적 투쟁을 통해 생성되고 유지될 수밖에 없다. 다음 장에서 필자는 아이다 마을을 다문화 윤리에 입각한 인정관계가 성립되고 권리와 규범의 확장을 향한 인정투쟁이 일어나는 다문화 공간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때 인정은 특히 자아실현에 초점을 맞추는 악셀 호네프의 논의와 동등한 참여라는 정의의 관점에서 출발하는 프레이저의 논의 모두를 포함하는 폭넓은 맥락에서 관찰될 것이다.

3. 아이다마을: 다문화 윤리에 입각한 인정투쟁의 장소

(1) 아이다 마을 구성과 공동체 목표

aida 마을은 공동체방, 교육방, 놀이방, 카페 등을 갖춘 독립된 물리적 공간과 교육에 필요한 비품 등 기본 조건을 갖추고 2009년 한 해 동안 총 1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실인원은 모두 502명이었다. 아이다 마을은 이주여성들이 찾아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상담을 받고 돌아가는 ‘방문 장소’가 아니라 이주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꾸려나가는 삶, 직업, 지식의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소의 마련은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와 관련해 ‘인천여성의전화’는 아이다 마을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aida마을이 갖고 있는 다른 점은 이주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통합지원의 틀’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한국여성들과 함께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자원을 스스로 넓혀 갈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고유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제목으로 실행되고 있는 수많은 교육들과 차별성이라 함은 ‘교육의 수혜자로서의 위치를 넘어서 교육 주체자로서의 성장’이다. 피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나누고 서로 성장시키는, 그래서 새로운 주체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함께 하는 곳이 바로 아이다마을인 것이다(의식화, 주체화, 조직화)”(인천여성의전화, 2009: 228).

‘마을’은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고 해서 건설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을’은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협업과 상호소통, 합의의 과정 속에서 점차 형태를 얻게 되는 어떤 것이다. 아이다 마을 역시 공동체/마을-만들기(community/village-building)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되어 나갈, 현재 진행과 미래지향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일종의 장기적인 기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적 상황에서 아이다 마을의 모든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주여성들이 안전한 사회정착을 위해 상호간에 관계를 맺고 지지집단을 만드는 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인천여성의전화, 2009a; 221). 프로그램은 직업활동을 목표로 한 직업훈련교육과 다양한 교육들, 그리고 멘토링 공동체 훈련, 다문화가족캠프, 다문화축제, 상담 및 수퍼비전 등으로 구성되었다.²⁾ 여기

2)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직업훈련교육은 컴퓨터 교육, ITQ 자격증반, 영상제작 및 웹 제작 교육, 홈페이지 교육, 언어교육(영어강사, 영어통·번역기초과정, 중국어강사, 중국어통·번역기초과정), 다문화강사양성교육 등을 아우르며, 기타 교육은 한국어교육 및 인증과정에서부터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력인증과정, 가족교육, 이주여성상담원양성교육 등을 포함한다. 아이다 마을이 진행한 이 프로그램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해 전국단위로 이주여성관련 활동을 펼치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기도 하다.

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과연 이 프로그램들이 모두 다 필요했는지, 참여자들의 욕구와 필요에서 출발한 것인지, 참여자들의 주체화, 의식화, 역량강화라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프로그램들 상호간에 유기적 관계가 있었는지 등이다.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 대한 기록들과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주여성들의 평가는 이들 상호간에 관계 맺기와 그를 통한 자기 존중감의 확장 등 상호인정의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시켜준다. 전문성 및 경제주체로서의 자신감 확보는 홈페이지교육과 강사교육(다문화, 통번역, 영어) 등의 취업훈련교육에서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각 프로그램들이 얻은 성과는 자기이해와 치유, 소통의 방식 실험하기, 관계성 형성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호관계와 역량강화의 단초가 앞으로 어떤 사회-공간적 구조화로 나아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다음에서 다루게 될 인정투쟁의 예들은 그러한 사회-공간적 구조화가 출신국가별 자조그룹을 매개로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2) 아시아 이주여성들의 ‘모국센터’로서의 아이다마을

인천여성의전화(이후 인여전)는 아이다마을 사업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1) 국가, 인종, 성별의 경계와 차이를 넘어 서로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일구는 장을 만든다.
- 2) 아시아이주여성들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모국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다.
- 3) 이주여성과 가족들의 소통을 도움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한국살이를 돕는다.

4) 아이다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언어적, 심리적, 경제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인천여성의전화a, 2009: 21).

이주여성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한국 선주민들이 평등하게 성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다마을의 출발지점이 유입국에서 새로 ‘집home’을 만들어야 하는 이주여성들의 실존적 상황에 대한 공간-사회적 대응이었음을 환기할 때 아이다마을의 성격과 기능은 무엇보다도 아시아이주여성들의 ‘모국센터’라는 핵심으로 수렴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구성원들의 필요와 욕구, 소통 및 수행능력에 따라, 구성원들을 위해 구성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마을이라면 당장의 의욕이나 선언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양상들이 더욱 중요해지지 않을 수 없다.

“마을은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다마을을 통해서 이주여성들은 자조모임을 만들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친정보다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에게 사회적 가족이 되어주는 친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인천여성의전화, 2009a: 23)

마을에 대한 이러한 설명에서 나타나듯이 ‘모국센터’라는 말은 이중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이주해 온 여성들은 ‘모국에서인양’ 이곳 아이다 마을에서 고립이나 소외를 벗어나 안전하고 통합된 ‘집home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한편,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집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즉 이들은 두 개의 집home에 동시에 감정적으로 애착과

친밀함을 느끼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경계성에 근거한 이주민들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비로소 유입국은 왜곡되지 않은 ‘인정’에서 출발하는 다문화 통합정책을 세울 수 있다. 다문화공간은 우선적으로 인정의 공간이어야 한다. ‘모국센터’ 즉 동시에 존재하는 두 개의 집home으로서의 아이다마을은 스스로 이러한 인정의 공간으로서 초국적 다문화 공간이고, 여기서부터 한국사회 전반이 인정의 윤리적 태도에 기초한 다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아시아의 다양한 나라들에서 온 여성들이라는 점, 즉 이 공동체는 종족 공동체들과는 달리 서로 타자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점에서 이 집/공동체가 명실상부한 초국가/다문화/여성(주의) 공간으로서 차이와 다양성과 타자성에 관한 새로운 감수성을 담은 이야기들, 새로운 담론들 그리고 실천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양한 출신성분을 가진 여성들이 물리적으로 모이는 공간이라고 해서 그 공간이 저절로 초국가적 실천과 다문화적 타자성 이해가 있고 여성주의적 세계해석과 변혁의지가 있는 공간 ‘인’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한 공간으로 ‘되어’ 가는 것이다.

아이다마을은 이주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공감과 연대를 전망하면서 구성해 나가는 공동체이다. 이곳에 모인 여성들은 일차적인 준거집단이 되어주는 ‘친정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 고립과 물리적 불편함을 서로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다문화강사양성교육 시간에 이들은 각자 한국에 와서 문화적으로 겪은 불평등과 결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음과 같은 공통된 경험을 서로 확인하였다.

남편과 갈등이 있을 경우에도 집을 나갈 수가 없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집 나가라’고 할 때 비참하고 슬프다; 시누이들은 ‘무조건 잘 살아라. 내 동생은 원래 성격이 저래, 그러니 네가 참고 살아라’고만 늘 말한다;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된다. 자신의 생각은 못 하게 된다. 생각을 하면 싸우게 되니까; 우리나라 음식을 해먹으면 시어머니나 남편은 ‘그게 그렇게 맛있냐, 맨날 그거만 먹게’라고 말하거나, ‘한국에 시집왔으면 한국사람이 돼야지’라고 말한다. (다문화강사양성교육 시간에 참여관찰한 내용임)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것의 감정적 차원뿐만 아니라 밑바탕에 깔려 있는 구조적 모순이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것은 이들이 다문화강사로 자신의 정체성을 키워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유입국에서 구성되는 공동체의 경우 본래의 영토를 벗어난 민족적 정체성은 혈연에 기반을 둔 본질적이고 주어진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상황에 의해 구조화된, 획득되고 선언될 필요가 있는 정치화된 정체성으로 전개된다(김정선, 2010). 유입국이 강제하는 통합의 조건에 저항해 귀속과 정체성의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우리 문화’에 대해, ‘나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말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는 사적인 동시에 공적이고 정치적이다. 아이다 마을의 이주여성들은 서로를 이러한 욕구를 지닌 구체적 타자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욕구를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이 겪게 되는 정체성 갈등의 문제로 담론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인정관계를 맺게 된다.

(3) 이주여성들 사이에 배치된 위계와 차별을 지양하다

: ‘우리 이주 여성’의 집단적 정체성 확보

소통방식의 실험이나 친밀한 관계 형성 등은 특히 참여자들이 이주여성 간, 지역 간 차이를 편견 없이 흥미로운 다름으로 이해하고 서로 인정해 주는 환경 조성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 출신국가, 계급, 학벌, 이주해 온 방식, 국적취득 유무 등 이주여성들 사이의 차이는 종종 위계화나 차별화로 작용하곤 한다.

한국어를 배울 때였는데, 중국(어)에 관심이 많은 교사가 중국출신 이주여성들한테만 특별히 관심을 보이더라구요 (베트남 여성); 시장에 가면 괴로워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거 중국산 아니예요?’라고 묻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아, 짬뽕 나라?’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나 자존심 상해요 (중국 여성); 몰도바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은 ‘몰도바라는 나라도 있어요?’라고 말하거나 ‘아, 몰디브요?’라고 말해요 (몰도바 여성); 한일 역사 관계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할까 걱정되지요. 그래서 한일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일본 여성의 말); 우리 베트남은 남쪽하고 북쪽이 아주 달라요. 나는 북쪽에서 왔거든요(북베트남 출신 여성). (다문화강사양성교육 현장에서 참여관찰한 내용)

이처럼 이주여성들은 출신국가나 (혹은 같은 출신국가라도) 출신지역에 따라, 그리고 어떤 한국 선주민들과 어떤 맥락에서 만나는가에 따라 상이한 이주여성 정체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여성들 간의 위계나

차별화는 한국사회가 이주민 혹은 이주여성들을 암묵적으로 혹은 명백하게 타자화시킨 결과이다. 이주여성들은 집단적 타자화에 맞서는 하나의 방식으로 다른 이주여성들과의 차별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주민들 사이의,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 사이의 차별적 경계를 내면화해서 그것을 다시 다른 이주민들에게 투사하기도 한다. 위에서 소개한 중국여성의 경우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위상이 얼마나 기계적이고 상투적인 선입견에 종속되는지 잘 보여준다. 그녀는 유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문학을 전공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유학생 신분이었을 때 그녀는 ‘한국말을 잘 하는 똑똑하고 멋진’ 중국여성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높은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남자와 결혼하자마자 그녀는 ‘유학생’에서 ‘결혼이주여성’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이때부터 그녀는 집단적 타자화에 포섭되었다. 자신의 개인적 노력이나 저항만으로는 외부의 시선이 던지는 이 포획망의 폭력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견디기 힘들어 했다. 이 중국여성의 경험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이주여성’이라는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가를 잘 드러낸다. 아이다마울의 프로그램들은 참여자들이 이방인으로서 개별적으로 겪은 차별들을 서로 공유하고 공론화시킴으로써 ‘우리 이주여성’이라는 변혁적 집단의식이 싹틀 수 있도록 유도되었다.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들에 대해 주류사회가 유포시키는 문화적 낙인은 주류사회에 적응함으로써 정착해야 하는 이주민들의 정체성에 분열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주민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게 그어지는 차별의 경계들에 대한 치밀하고도 솔직한 토론은 이주민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줌으로써 자율적인 주체로, 공동체적 주체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 필수적이다.

(4) 생활세계의 다문화 생산주체

: ‘교사’가 된다는 것의 의미

교육의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다문화강사양성교육은 연극 및 표현, 인문학, 인권과 젠더 등 세 부분으로 크게 범주를 정하고 세 명의 교사가 각각 책임지고 수업을 일관성 있게 진행시켰다는 데에서 다른 단체들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기존의 다문화강사 교육과는 차별성을 보였다. 이 다문화강사양성교육은 대만의 이주운동단체인 〈TransAsia Sisters Association〉(앞으로 TASAT로 명명)을 모델로 삼아 이루어졌다. TASAT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여성들과 대만 출신 활동가들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이들은 파울루 프레이리(Paulo Freire)의 『페다고지』와 아우구스또 보알(Augusto Boal)의 『민중연극론』의 정신에 입각해 중국어 교육과 사회극 시연, 다양한 포럼, 글쓰기, 그림 등을 통해 ‘외국인 신부’를 둘러싼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과 맞서 결혼이주 여성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진력해왔다. 이들은 또한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가부장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대만여성들과 함께 공동의 관심과 경험, 느낌들을 나누고, 더 나아가 이주를 ‘여성의 삶’과 연결시켜 사유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한다.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토론과 대화는 여성주의 의식화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상호 역량강화를 이루어낸다. 다문화사회의 내용과 형식을 젠더 관점에서 재구성해내는 것이다(김현미, 김영옥, 김민정, 2009).

아이다마울의 다문화강사양성교육 역시 TASAT처럼 선주민 여성과 이주민 여성 간의 상호인정과 역량강화를 비전으로 삼고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이주여성으로서 받는 차별과 배제의 경험에서 출발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

으로 산다는 것, 여성의 성과 결혼, 가정에서 여성들이 행하는 ‘보살핌’ 노동의 경제적 가치, 이주여성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리 등을 함께 토론했다(인천여성의전화b, 2009).

이주여성들의 언어 및 문화교육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이 수동적이고 취약한 배움의 대상에서 출발해 스스로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유입국의 사람들 앞에 나서서 드디어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주체로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대만의 TASAT 경우도 그렇고 한국에서 이러한 자기 확인의 과정을 거친 다른 이주여성들의 경우도 그렇다. 유입국의 사람들 앞에서 서서 ‘교사’로서 자신의 문화에 대해, 그리고 서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표현할 때의 놀라움과 기쁨에 대해 그들은 높은 자긍심으로 이야기한다. 그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상호인정의 원 안에 드디어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주해 온 여성들에게도 (언어 교육 및 양육 상담 등에서) ‘교사’로서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것 또한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 확인의 핵심 경험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들은 궁극적으로 이주민과 다른 선주민들을 비롯한 소수 집단의 인권을 아시아적 맥락에서 함께 고민하는 역사적 주체로서의 자기변신을 꾀할 수 있다(Chio Yadrung from Thailand, 2008).

아이다마을의 손타냐 씨와 장지연 씨 또한 다문화강사양성교육을 받은 후 한국의 일반 성인과 지역 여성단체의 한국인 활동가 및 이주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각각 두 번, 세 번의 다문화교육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본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서의 이주현상과 여성이주민의 ‘한국살이’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응했다.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교사로서의 책임의식’과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강렬하게 느낀다고 이들은 말한다. 특히 ‘다른 이

주여성들을 대표한다’는 느낌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고 긴장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후배이주여성들’을 의식 있는 다문화교사로 이끌 수 있기를 희망한다(2009년 11월 24일 인터뷰).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강사양성교육을 받은 참여자들이 자체 모임을 조직해서 집단적 힘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다문화교육 내용과 교수법, 교육대상에 따른 차별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강사로 경험한 현장의 분석을 통해 보다 변혁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생활세계의 다문화 생산주체로서 이들은 한국의 주류 문화세계에 새로운 시각을 도입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5) 남편들의 다문화가족 의식강화

아이다마을의 상징적 의미와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간의 실천적 효과

다문화적 공간-사회관계 이해는 남편을 비롯해 시부모님 등 ‘다문화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이다마을에서 교육을 받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주여성들의 남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아이다마을 주민 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들 남편들은 ‘아이다마을’의 존재와 그 활동이 낯선 곳에 와서 힘든 적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인들에게 활력소와 심리적 안정을 불어넣어준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어 교육과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받으면서 이주여성들은 남편 외에도 한국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안정감을 회복하고 또한 다른 이주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생활과 외부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아이다마을은 이주여성들에게나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들에게나 국가 혹은 사회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지 즉 '인정'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한국에서 '국제결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해석의 문화정치적 경합에서 이들이 주체적 위치에서 발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낯선 나라에 가서 그곳 음식이나 언어, 생활환경 등을 경험하고 그곳 여성을 만나 결혼에 이르는 것, 그리고 그 여성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가족'을 구성해 산다는 것은 다른 일반 한국남성들의 결혼과정과는 분명 다른 내용을 지닌다. 아이다마을은 이들의 다른 경험을 '지구화 시대에 국제적으로 살고 있다'는 긍정적이고 자기 해방적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심리적·사회적 지지기반을 형성해 준다. 이들은 남편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는 기간에도 한국어를 배우는 부인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아이다마을에 와서 서로 '수다'를 떨면서 국제결혼을 한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공유한다. 아이다마을은 낯선 문화권에서 온 부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다른 국제결혼가정 남편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관심을 공유하는 한국 선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제결혼의 의미를 두고 한국사회와 상징적·정책적 대화를 나누고 협상을 벌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구체적 장소이며 상징적 공간인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들은 아이다마을에서 행해지는 남편 프로그램이 국제결혼가정 2세들의 장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길 희망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숙고되길 바랐다.

“제일 걱정이 남편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저녁 때 잠깐이고 ... 아이들하고 많이 있는 게 아닌데요. 물론 집사람하고 많이 있지만 한국어가 서툴러 아이

하고 계속 뭔가를 하는 게 아직 많이 미흡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국제결혼해서 키운 아이가 ... 우리나라 (다른 아이) 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가르쳐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뒤떨어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이라던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 좋은 남편, 가정을 행복하게 잘 꾸려나갈 수 있을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남편 인터뷰 1)

한국사회는 국제결혼 가정 2세들의 상황을 거듭 '문제'의 관점에서 기술한다. 이처럼 부정적인 접근방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의 자녀가 왜곡되게 자라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명랑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오히려 관습적인 가족관에 입각해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다른 한국가정에 모범을 보이고 그러한 다름의 내용과 형식을 널리 알리는 것은 한국에서 다문화가 정착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부부만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시어머니 계시면 확실히 틀리더라. 남자가 (집안일을 같이) 하고 싶어도 어머니가 보기 싫어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은 오래 사셔서 인식이 잘 안 바뀌니까. (...) 어떻게 보면 틀릴 수 있는데, 생각만 조금 달리 생각하면, 다른 게 틀린 건 아닌 것 같다, 보니깐.” (남편 인터뷰 2)

'다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한 이러한 구분은 다문화의 관점에서 국제결혼 가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타문화 출신의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수행하는 한국남성들은 힘든 현실적 과정을 통해 이것을 깨닫게 된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 바뀌려면 당사자들이 이와 같은 인식 변화의 과정을 가능한 많이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아이다마을은 이러한 개인 경험의 스토리들이 한국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담론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맥락을 형성해준다.

(6) 종족 공동체를 넘어서

: 초국적 다문화 소수자 집단 의식으로

가부장적/민족주의적 성격을 그대로 간직한 채 유지되는 종족 공동체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본질화시킬 때 여성을 비롯해 그 내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타자들의 존재는 부정되거나 억압된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많은 비판은 여기에 기인한다. 그러나 아이다마을과 같이 모국어들/민족성들이 복수의 형태로 공존하는 공동체에서 본질화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다. 각각의 모국어는 서로 상대적인 위치에 서게 되며, 이것은 각 모국어가 모국어로서 '기능' 하는 동시에 모국어의 기원적 위상은 탈각됨을 의미한다. 또한 민족성으로 회귀하는 문화적 특성들 역시 이곳에서는 복수 형태로 공존한다. 상호인정과 그것에 기초한 지지공동체, 이것이 바로 아이다마을의 공동체 특성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위치해 있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 집단으로서의 정체성 인식이다. 아이다 마을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이주여성들이 바로 그 소수자의 위치성을 역동적으로 활성화시켜 새로운 지역운동, 새로운 마을 만들기를 벌여나갈 수 있는 장소로 작동한다.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권력에 있어 취약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는 소수자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의식 즉 소속의식이다(박경태, 2008).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한다는 '의식'은 여성주의 운동이 보여주었듯이 각자가 사적 차원에서 느끼는 차별이나 배제를 '소수자성'에 입각해 정치적·역사적 변혁의 계기로 전환시킨다.

민족주의와 가부장제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여성으로서, 이주민으로서 다중적인 소수자적 위치에 놓여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소수자 집단의식은 이들이 주류 한국사회 시민으로서 모자람 없는 성원권(membership)을 누려야 한다는 명제와 배치되지 않는다.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는 의식을 통해서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상태의 귀속(belonging)을 넘어서는 성원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성원권은 다중적 스케일의 면모를 띤다. 사회적 정체성을 체현하는(embodiment) 이주여성의 육체, 그리고 그들(의 이주과정)을 둘러싸고 젠더 정치학이 매개되고 펼쳐지는 주 공간으로서의 가정home은 일차적으로 이주여성의 공간/장소로서 미시 스케일을 이룬다. 반면에 이들의 초국가적 이주의 구조적 배경이 되는 국가정책이나 세계 경제는 거시 스케일을 이룬다. 이주의 여성화는 단순히 양적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 관계가 전 지구적으로 확장된 결과를 가리키고 있다(정현주, 2009). 결혼이주여성들의 집단적 모임/장소인 아이다마을은 '이주여성'이 체현하는 다중적인 사회-공간적 차원들을 여성주의 초국적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정치화할 수 있는 곳이다.

아이다마을에는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의 자조그룹이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나, 결성 중에 있다. 종족 공동체들을 여러 개의 지류처럼 자체 내에 품고 있는 초국적 다문화 공동체인 것이다. 이러한 구성형태는 이주여성들의 정체성 재/협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개인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종

족 집단의 성원으로, 다종족/다문화 집단의 성원으로 이들은 다중적 정체성을 가진다. 이 다중적 정체성을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다중적 소수자성에 입각해 새로운 운동의 차원으로 결집시키는 것이 바로 아이다마을이 지향하는 ‘통합’ 일 것이다.

: 보유. 야마다 다카코 씨의 인정투쟁

야마다 다카코 씨는 이미 2007년 8월부터 외국인 시민기자로서 오마이 뉴스에 기사를 쓰고 있다.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두 아이를 둔 그녀는 일본과 한국이 서로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하고자 한다. 그녀는 인천 아이다마을의 다문화강사양성과정과 미디어 교육에 참석한 이래로 더욱 활발하게 다문화나 이주여성의 사회권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현장을 찾아가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뷰를 바탕으로 기사내용을 써서 오마이 뉴스에 올리는 그녀의 작업은 이주여성들의 주체적 목소리내기라는 관점에서 전범이 될 만하다. 그녀는 인천지역 주민으로서의 의식이 매우 강하다. 다문화강사양성과정에서 그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다문화 도시 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언급한다. 인천이라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녀의 활동은 인천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명분을 넘어선 실질적인 다문화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당사자 활동이며 문화정치적 실천이다. 미디어 교육과 다문화강사 양성교육을 동시에 받은 그녀는 이미지와 글의 조합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 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이나 질문을 제기한다. 이것은 그녀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일 뿐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이주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유입국의 체제와 이주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녀의 글에는 아이다마을에서 다문화강사양성교육을 받으면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열띤 토론을 벌인 다른 이주여성들의 목소리가 집단적으로 들린다. 그래서 한국사회를 ‘이주민과 다문화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살필 수 있는 유익한 성찰의 지점을 마련해 준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 25일에 실린 기사 “한국인과 결혼 뒤 공부하려면 성적증명서 있어야? : [우리 다문화 가정 이야기 17] 다문화가정 젊은 엄마의 학업 가로막는 ‘증명서’”를 자세히 살펴보자.

“나중에 아이들을 대학 보내고, 가사에 힘을 보태려면 제가 지금이라도 대학에 다녀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꿈같은 이야기가 됐어요. 우리 가족의 내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요.” 평소 가깝게 지내는 베트남 출신의 한 국제결혼 여성이 얼마 전 대학 진학이 좌절된 뒤 내게 푸념 조로 말했다. 고국에 있을 때 대학에서 관광학을 전공했던 그녀는 2000년 아르바이트로 베트남어를 가르치던 한 한국인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착하고, 성실한 데다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마음에 이끌려 그녀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결국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현재 그녀의 나이는 29세, 남편은 48세. 딸아이(8)와 아들(6)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인 12년 뒤 남편은 환갑줄에 들어설 정도로 적지 않은 나이차다. 그때가 오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인 그녀가 돈 벌어 식구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언제부터인가 그녀의 마음이 다급해진 이유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중단했던 대학 공부를 계속하고, 자격증이라도 부지런히 따놓고 싶었던단다. 그래야만 어린아이들과 가족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일단 그녀는 집에서 가까운 수도권의

한 대학 문을 두드렸다. 대학 당국은 그녀에게 학창 시절의 모든 성적증명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녀가 졸업할 당시 초등학교엔 컴퓨터 시설이 없어 졸업생의 성적증명서를 따로 보관해둘 형편이 못 됐다. 한국의 대학 관계자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호소했지만 대안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08051)

아마다 다카꼬 씨는 이 기사에서 이주여성이 모국에서 취득한 학력이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한국사회를 비판하면서 이 문제를 ‘사회적 약자’로서의 이주민 정체성과 연결시켜 논의한다. 일본에서 7년 넘게 의류 디자이너로 일했던 그녀 역시 초등학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해 ‘학점은행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유입국 사회에 편입될 때 이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계층의 하향평준화를 경험하게 된다. 송출국의 국제적 서열에 따라 이주민들의 학력이나 경력을 평가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많은 이주여성들을 경제적으로 주변화시킨다. “상당수의 다문화 가정은 부부 간에 나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많은 남편을 대신해 아내가 가정 경제를 떠맡게 될지도 모른다. 남편이 경제활동을 계속하더라도 사교육 천국으로 불리는 한국에서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면 여성들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애당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는 그녀의 말은 한국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이 계층의 재생산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는 무관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글에서 언급되고 있는 “평소가깝게 지내는 베트남 출신의 한 국제결혼 여성”은 아이다마을에서 함께 다문화강상양성교육을 받은 여성이다. 교육에 참가했던 이주여성들이 수업시간에 서로 공유했던 각자의

‘이주와 정착’ 과정 스토리가 이 기사에 일차적인 심리적 맥락을 마련해주고 있는가하면, 또한 수업시간에 지속적으로 토론해왔던 이주여성의 사회권과 경제권, 통합의 방식이 정치적 맥락이 되고 있다. 여기서 아마다 다카꼬 씨는 송출국에서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 한국사회의 교육평가 체제 하에서는 이주여성들이 단순노동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국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안전한 가족 만들기나 책임감 있는 2세 교육 등에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음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보다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녀의 생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중대 사안이다. 그녀는 이 문제를 ‘2008 인천사회포럼’에서도 공식적으로 의제에 부쳤고 2009년 11월 인천항운노동조합에서 열린 ‘정부합동 고충 상담회’에 가서도 의논했다. 이때의 상담 경험을 들려주고 있는 2009년 11월 27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우리는 이주민이 한국의 주류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살필 수 있다. 이주민들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는 거의 10년이 넘는 오랜 공존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근본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다시 말해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주민으로서 또는 시민으로서 살게 되는 과정은, 그것을 적응이나 동화, 혹은 편입이나 통합 등 그 어떤 언어로 부르든지, 일종의 포기를 전제로 한 순응의 과정임을 부인하기 힘든 것이다.

2009년 11월 27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그녀는 우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대해 이주민들이 갖는 심리적 거리감과 현실적 고충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제야 영주자격을 얻었으니 좀 편하게 말 할 수도 있지만 시아버지 돌아

가졌을 때에 정신이 없이 재류기한이 넘어서 불법 재류자가 되버린 일도 있던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이주민은 항상 법의 밑에서 감시받고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한 약자였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게다가 나중에 어떤 동영상 사이트에서 출입국에서 불법 이주 노동자들을 토끼들 잡을 듯 잡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니까 더욱 인상이 나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다.”(표기는 원문을 그대로 따랐음.)

뿐만 아니라 특히 이주민들에게 불친절한 ‘예의 없고 공적 의식 부족한’ 공무원들, 한국사회에서 (영주권이나 국적의 취득과는 상관없이) 이주민으로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많은 부분을 ‘포기’ 하면서 살게 되는 심리적 상황을 털어놓는다. 그러면서 정부합동 사업이나 행사에 ‘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자랑스런 후배’ 이주여성에 대한 호뭇함을 드러낸다.

“자원봉사자로서의 공식인 의식을 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좀 아쉽다. 행사 있을 때 마다 잘 홍보해야 되는데 ... 우리가 자원봉사자로서도 좀 더 알려야 되겠지요~’ 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모습에 봉사자정신을 보여주며 보기 좋았다.”

그녀는 초등학교 성적/졸업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학점은행제에 접근할 수 없었던 자신의 고충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이 먹는 외국인들에게는 공부도 못하게 할 한국교육법은 한심하다’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언젠가 부터 ‘내가 여기서 이주여성이며 엄마로서도 좀 욕심 내고 뭔가 배우겠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건가?...’ 라는 포기할 마음이 강해진 것 같다 ... 나

에 있어서 언젠가 부터 ‘어차피 한국사회는 그렇겠지...’ 라고 쉽게 포기할 습관이 버릇이 되어있던 것 같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에 ‘고충상담회’에 처음으로 참석해보면서 우리들의 작은 목소리라도 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더욱 해결하기가 힘들게 되겠다는 것을 실감 하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태도를 성찰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56509))

4. 나가는 말

다양한 문화적·정치적 배경을 지닌 이주여성들이 모여 만드는 다문화 공동체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원들의 주체성 변화가 일어나는 한편, 이를 통해 공간에 특수한 장소성이 부여됨으로써 점진적으로 사회정치적 결과를 야기한다. 아이다마울은 이러한 사회-공간적 장소의 하나로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여성들이 구체적 욕구를 지닌 상호 의존적 존재로서 상호인정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공동의 목적과 가치지평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연대함으로써 한국사회가 제공하는 권리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규범을 창조할 수 있는 인정의 문화를 경험하는 다문화공간이다. 2009년 시작된 마을 만들기는 점차적으로 자기 동력을 발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독립적인 체계와 상호 역량강화의 수행적 경험을 갖추고 있던 필리핀 이주여성 공동체 다마안은 인천여성의전화라는 한국 주류사회 선주민 여성 활동가들과 만나게 됨으로써 한국/지역/사회와 적극적인 교류를 맺기 시작했다. 다마안은 또한 베트남 여성들과 중국 여성들에게 모델이 되어줌으로써 이들이

자조그룹을 만드는데 창발적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이처럼 세 개의 종족 공동체가 각자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변형하면서 동시에 서로 긴밀하게 연대하는 다중적 구조를 지닌 아이다 마을은 벤하비브가 제안한 것처럼 문화공동체의 진정성과 자유 민주주의의 자율성이 윤리적 담론과 민주적 실용주의에 입각해 토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다문화 공간/장소로 형성되고 있다(벤하비브, 1996). 오랜 이주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초국가적 실천을 하고 있는 다마얀과 달리(김정선, 2009) 베트남 여성 공동체 궁남따이나 중국 여성 공동체 수퍼우먼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그러나 이들이 아이다마을이라는 공동체 내부에서 경험하는 사랑과 연대의 상호인정은 한국 주류사회와 대화하고 협상하는데 중요한 지지대가 되어 준다. 2010년 7월에 한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결혼해온 지 7일 만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다마얀과 궁남따이, 수퍼우먼 대표들은 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여성의 인권’을 외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인신매매적 성격이 짙은 국제중개업이 많은 이주여성폭력사례를 낳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접 나서서 이에 대해 저항하고 한국사회를 향해 인권존중을 호소하거나 주장하는 일은 없었다. 당사자들로서 이들은 이주여성들이 유입국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환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을 만들어 중개업자들의 비인권적 상업주의에 합법성을 부여한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보다 철저하고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를 촉구했다. 이들의 목소리 내기는 명백한 정치적 실천이다. 이것은 아이다마을이라는 이주여성 공동체가 국지적 장소 인천에서 출발하여 한국사회에 다문화공간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실천과 실험의 장임을 보여준다. 다문화주의가 이주민들의 실질적인 집/보금자리home, 안전한 장소, 연대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Entrikin, 2004: 20, 최병두, 2009: 642에서 재인용), 다시 말해 한국사회가 타자/성에 대한 인정에 근거한 다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별적이며 집단적인 실천을 하는 공동체 마을들의 생성이 주목된다.

5. 참고문헌

- 김영옥. 2007.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46-2: pp. 129~160
- 김정선(2010), 「나의 'home'은 어디인가?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 공동체 형성과 의미」,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주최 학술대회 『유라시아 경계인들의 정체성 문제』, 21-50.
- 김현미, 김영옥, 김민정(2008), 『생활세계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사례연구 및 적용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미(2008),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26.
- 박배균(2009),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4가지 공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5권 제5호, 616-634.
- 인천여성의전화(2009a), 『아시아 이주여성 다문화 공동체 마을 활동백서』 (2009b), 『문화생산자로 대한민국에 서다』
- 정현주(2008)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 제 43권 제6호, 894-913.
- 조현미(2009),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사례로 본 사회통합의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 15권 제4호, 449-463.
- 최병두(2009), 「다문화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공간에서 인정투쟁의 공간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5권 제5호, 635-654.
- Agnew, John. A., (1987), Place and Politics: The Geographical Mediation of State and Society, Allen & Unwin, Boston, 박배균(2009)에서 재인용.
- Ahmed, Sara(1999), "Home and Away : Narratives of Migration and Estran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2(3), pp.329-347
- (2003), "Introduction: Uprootings/Regroundings: Questions of Home and Migration", in Sara Ahmed, Claudia Castaneda, Anne-Marie Fortier and Mimi Sheller(eds.), Uprootings/Regroundings : Questions of Home and Migration, Oxford, New York: Berg Publishing, pp.1-19.
- Chio Yadrung from Thailand, 2008
- Crang, Mike & Thrift, Nigel(eds.)(2000), Thinking Spac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Enriklin, J.N., (2004), Democratic place-making and multiculturalism, Geographisk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84(1), 19-25, 최병두(2009)에서 재인용.
- Fraser, Nancy & Honneth, Axel(2003),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Verso, London · New York.
- Fortier, Anne-Marie(2000), Migrant Belongings : Memory, Space, Identity, Oxford: Berg
- Gunew, Sneja(2003), "The Home of Language: A Pedagogy of the Stammer", in Sara Ahmed, Claudia Castaneda, Anne-Marie Fortier and Mimi Sheller(eds.), Uprootings/Regroundings: Questions of Home and Migration, Oxford, New York: Berg Publishing, pp.41-58.
- Hall, Stuart(1996), "Who Needs "Identity"?", in Stuart Hall and Paul du Gay(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London: Sage.
- Harvey, David(1996),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Blackwell, Oxford.
- Jessop, Brenner(2002), "Time and space in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and their implications for state power", Rethinking Marxism, 14(1), 97-117.
- Jessop, B. & Jones, M. (2008), "Theorizing Socio-Spatial Rel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6(3): 389-401, 박배균(2009)에서 재인용.
- Lefebvre, Henri(1990), The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Oxford.
- Portes, Alejandro(1999), "Conclusion: Towards a New World: The Origins and Effects of Transnational Activities", Ethnic and Racial Studies, 22(2), pp.463-477
- Smith, Michael Peter and Luis Eduardo Guarnizo(eds.)(1998), Transnationalism from Below,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
- Zizek, S., (1997), "Multiculturalism, or, the cultural logic of multinational capitalism", New Left Review, 225, 28-51.
- 야마다 다카코 (2010), "한국인과 결혼 뒤 공부하려면 성적증명서 있어야?: [우리 다문화 가정 이야기 17] 다문화가정 젊은 엄마의 학업 가로막는 '증명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08051
- 야마다 다카코 (2009), "이주여성들에게 친절했으면 좋겠다 [우리 다문화 가정 이야기16] 10년만에 찾은 '정부합동 고충상담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56509

